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Relationship of University Students'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and
Self-esteem with Their Motivation of Parenthood*

조성연(Songyon Cho)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for parenthood related to their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and self-esteem. Participants were 447 junior and senior students (male 263, female 184) in 5 universities throughout Korea. Results were : (1) Male students and employed mothers wer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and unemployed mothers' 'motivation for strengthening biological family ties' but there were reversed results in 'motivation for traditional norms.' Students majoring in home economics showed the highest score in 'altruistic-emotional motivation.' (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for parenthood and definition of parenthood and empathy. 'Motivation for traditional norms' correlated positively with self-esteem. (3) Motivations for parenthood were explained by about 4~28% by their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and self-esteem.

Key Words : 부모됨의 동기(motivation of parenthood), 부모됨의 의미(definition of parenthood), 감정이입(empathy), 자아존중감(self-esteem).

I. 서론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이로 인한 초혼 연령의 상승은 부모가 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직 성숙

하지 않은 상태의 청소년들이 미혼모가 되는 상태도 발생하고 있어 부모가 되기 이전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가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고 되돌릴 수도

* 이 논문은 2006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60082).

¹⁾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ngyon Cho,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 Anso-Dong, Cheonan-Si, Chungnam, 330-713, Korea
E-mail : sycho@hoseo.edu

없으며 일생 지속되는 연습이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독거가족(single family)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가 된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역할을 배우고 인식할 수 있었지만 핵가족화 되고 친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특별히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책을 읽지 않는 한 젊은 부부들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그리하여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별다른 준비 없이 부모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LeMasters(1957)는 많은 부부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준비 없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조성연, 2006 : 39). Browing(2000)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결혼에 대한 관점이 상호보호와 만족에 대한 차원을 점차 강조하고,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부모됨의 동기와 의미도 서로 평등한 차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과거 부모됨의 의미를 자녀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부모됨의 동기도 대를 잇거나 규범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현대는 부모가 되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동기와 의미도 상당 부분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덩크족(DINK)의 출현과 같은 무자녀 가족을 생겨나게 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다양한 부모됨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8이라는 낮은 출산율은 부모됨의 동기나 부모됨의 의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결혼하더라도 자녀출산을 하지 않는 양상을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 김승권(2003)이 기

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1년 8.5%에서 2002년 44.9%로 10여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27%가 공감했는데 남학생(30.8%)이 여학생(23.0%)에 비해 더 높았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7.3%나 되었다(조선일보, 2007. 3. 8). 이와 같은 결과들은 결혼한 사람이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부모됨에 대한 동기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됨(parenthood)이란 실제로 부모가 되기 이전의 심리적인 동기로서 획득되고 선택되는 것이며 각 개인마다 다르다. 그리하여 부모됨은 사회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부모됨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Veever(1973)는 여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즉,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사회성원을 충원하는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결혼한 부부의 생활에 의한 자연스런 결과이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성인이라는 정체성의 획득이며, 자녀는 결혼생활을 유지시켜주고,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며, 이혼을 방지해주며, 자녀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정현숙 등, 2002 : 19-20). 이와 함께 Powell(1993 : 87)은 부모됨이란 실제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였고, Lamana & Reidman(1988)은 자녀는 부모에게 즐거움의 원천이라고 함으로써 부모됨은 개인적 의미도 지니게 된다. 즉, 부모가 되는 것은 운명이고, 사랑의 분신을 두고 싶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즐겁고 보람된 일이며, 대를 잇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성인임을 증명해주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자신도 성인의 대열에 속했다는 성취감을 얻으며, 자녀를 통해 자신이 못다 이룬 소망을 대신 이루고, 자녀는 부모에게 든든한 존재로 인식되며, 부모가 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달성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보다 성숙해지며, 자신의 부모들과 자신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태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조성연, 2006 : 28-29). Erikson (1950)은 부모가 된다는 것을 생산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인간은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욕구를 느끼는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부모가 되며, 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역할을 하게 된다(정현숙·유계숙, 2001 : 319).

이러한 일반인들의 부모가 되는 동기는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결혼이나 그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나 의미에 대해서도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Clavert & Stanton(1992)은 청소년들의 89%가 부모가 되고자 희망하거나 부모됨에 대하여 높은 동기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김은주(2006)는 여대생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하겠다'는 학생이 78.2%이고, '결혼 후 자녀를 낳겠다'는 학생이 76.6%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기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부모됨의 동기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부모가 되기 이전의 심리적인 준비를 위해서나 혹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Morahan-Martin(1991)의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연속성, 전통, 안정, 부모기의 역할,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목표 및 인센티브,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등과 관련된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가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유계숙·정숙(200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결과, 이타적·정서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전통적·규범적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Bell, Bancroft, & Phillip(1985)은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됨에 부여하는 의미나 부모됨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Jensen, Christensen, & Wilson(1985)도 부모됨을 일종의 보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됨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를 제공해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따라 부모됨의 동기는 심리적 요인과 성, 학년,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유형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들 및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이들 변인들이 부모됨의 동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결과에서 이타적인 면의 부모됨의 동기가 높게 나타난 바, 부모됨의 동기는 타인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을 경우, 즉 감정이입이 더 잘 될 경우에 더 높고, 이러한 감정이입은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더 높다. 이에 대해 Sroufe(1983)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융통성있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다 더 감정이입적이었던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Donovan, Leavitt, & Walsh(1990), Fish

& Stifter(1993) 등은 자신의 문제해결에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에 양육자로서의 부모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어 성공적인 부모됨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경우에 부모됨의 동기나 의미가 더 높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감정이입은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해 이타적 관심과 배려가 일반화될 수 있다(조성연 등, 2006 : 357). 그러므로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를 부모됨의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미래 대학생들이 부모가 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관련하여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정옥분, 2002 : 536). Batson(1991)의 감정이입-이타성 가설에 의하면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돕기 행동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곤경에 처한 사람의 고통을 자신도 그대로 느끼는 감정이입이다. 즉,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돕기 행동을 한다(정옥분, 2006 : 350). 그러므로 부모됨이란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동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됨의 동기도 감정이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판단으로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이며, 자신의 역량이나 유능함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요소가 강조되는 개념이다(이숙·최정미, 2003; 조성연, 2005). 이는 인간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고, 작은 성취를 통해 형성되는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기도 하다(정옥분, 2006 : 189). 그리하여 Rogers 등은 자아존중감이 성격

의 핵심이라고 보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만족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Jaffe, 2000 : 28). Jaffe(2000 : 29)는 자아존중감이 생의 초기에 양육자로부터 받은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으로써 이것이 부모됨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James(1980)는 인간은 사회적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아존중감을 성공하려는 것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 설명함으로써 욕구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보았다(송인섭, 1990 : 15).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부모됨의 동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Jaffe(2000 : 101)도 부모됨은 개인적 자질, 즉 자아존중감, 자기확신, 교육수준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를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연구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을 근거로 미래 부모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부모가 되려는 내적 욕구를 유발하여 부모가 되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되므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유안진·신양재(1993)는 서울과 인천, 춘천 지역의 46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조사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부모됨을 통해 성인 정체감이거나 부부 및 가족으로서의 지위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위 요인,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연장하고 실현하고

자 하는 자기연장 요인, 자녀출산과 성장을 통해 창조와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창조·성취감 요인, 집안이나 사회의 존속과 계승을 위한 전통성 요인, 자녀를 통해 혈연간의 애정과 유대감을 갖고자 하는 일차적 집단 유대감 요인의 다섯 가지 요인을 밝혀내었다. 각 요인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대학생들은 창조·성취감 요인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위 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대학생들은 사회적 압력이나 지위 때문에 부모가 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부모가 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부모됨의 동기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사회적 지위 요인, 자기연장 요인, 전통성 요인을, 여학생은 창조·성취감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부모됨의 동기에서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계숙·정현숙(2002)은 서울지역 대학생 311명을 대상으로 8가지 부모됨의 의미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 부부결속적 동기, 영속적 동기의 다섯 가지 부모됨의 동기 요인을 밝혀 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부모됨의 의미는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이고,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만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부모됨의 동기와 의미에 대한 성차를 살펴본 결과, 부모됨의 의미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됨의 동기에서는 영속적 동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됨의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를 11~32% 설명해줌으로써 비교적 많은 설명력을 나

타내었다. 특히 부모됨의 의미 중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이 부모됨의 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화윤·최재숙·마지순(2002)은 35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숙명적 동기, 이타주의적 동기, 자기도취적 동기, 도구적 동기로 나눠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들은 도구적 동기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이타주의적 동기를 들었고, 숙명적 동기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지은(2000), 정미라·이희선·배소연(1995) 등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부모됨의 동기로서 자녀양육 자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이타주의적 동기가 높았으며, 가계계승이나 노후의 의존과 같은 숙명적 동기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됨의 동기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학생은 가문의 존속, 여학생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인정을 얻는데 더 가치를 두었다.

부모됨에 있어서 부모됨의 의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 이후에도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최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평등성을 주장하면서 결혼 후의 가사활동의 평등성 등 제반 결혼생활에서의 평등원리에 따라 부모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등 과거와 다른 부모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모됨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부모됨의 동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하여 개인적 측면인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인구

- 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은 부모됨의 동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서울·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제주지역별

로 각각 1개씩 유의표집하여 이들 대학교의 미혼의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5개 대학교 대학생 55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이중 결혼한 학생과 한 문항이라도 누락된 학생들의 자료를 제외함으로써 최종 4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부모로서 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일반 사회인들에 비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적고, 둘째, 각종 교양과목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셋째, 대학생활에서의 이성교제를 통해 결혼과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저학년에 비해 결혼과 부모됨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학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

<표 1> 연구대상의 인구론적 특성

(N=447)

변인	하위영역	빈도(%)	변인	하위영역	빈도(%)
지역	서울·경기도	104(23.3)	전공	인문대	89(19.9)
	충청도	132(29.5)		사회대	146(32.7)
	전라도	94(21.0)		자연대	46(10.2)
	경상도	92(20.6)		공대	92(20.6)
	강원도·제주도	25(5.6)		생활과학대	30(6.7)
	소계	447(100.0)		예체능대	44(9.8)
성	남	184(41.2)	학년	3학년	277(62.0)
	여	263(58.8)		4학년	170(38.0)
	소계	447(100.0)		소계	447(100.0)
부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2(16.9)	부모 직업 유형	전문직	140(33.7)
	고졸	209(49.2)		행정·사무직	125(30.0)
	2년제 대졸	15(3.5)		서비스·판매직	125(30.0)
	4년제 대졸	99(23.3)		농어업	3(0.7)
	대학원졸 이상	30(7.1)		무직	23(5.5)
	소계	425(100.0)		소계	416(100.0)
모	중졸 이하	132(30.1)	모	전문직	51(11.9)
	고졸	226(51.5)		행정·사무직	19(4.4)
	2년제 대졸	17(3.9)		서비스·판매직	125(29.1)
	4년제 대졸	58(13.2)		농어업	1(0.2)
	대학원졸 이상	6(1.4)		전업주부	233(54.3)
	소계	439(100.0)		소계	429(100.0)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263명(58.8%), 여학생은 184명(41.2%)이었으며, 3학년은 277명(62.0%), 4학년은 170명(38.0%)이었다. 지역별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강원도와 제주도의 대학생들이 가장 적게 표집되었다. 전공은 대체로 각 대학의 학생수에 비례하여 표집함으로써 사회대(32.7%), 공대(20.6%), 인문대(19.9)의 순이었으며, 예체능대(9.8%)가 가장 적게 표집되었다. 부모들의 교육수준은 부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직업유형은 전문직, 행정·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이 고르게 표집되었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54.3%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됨의 동기척도

부모됨의 동기척도는 Arnold & Fawcett(1975), Kirchner & Seaver(1977), Rabin & Greene(1968)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유계숙·정현숙(2002)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3문항), 전통적·규범적 동기(6문항), 이타적·정서적 동기(5문항), 부부결속적 동기(3문항), 영속적 동기(3문항)의 5개 하위요인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들의 동기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결속적 동기와 영속적 동기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져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합하여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3문항), 전통적·규범적 동기(6문항), 이타적·정서적 동기(5문항), 부부결

속·영속적 동기(6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73, 전통적·규범적 동기 .71, 이타적·정서적 동기 .73, 부부결속·영속적 동기 .73이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5였다.

2) 부모됨의 의미척도

부모됨의 의미척도는 Lupton & Barclay(1997), Veevers(1973)의 연구에 기초하여 유계숙·정현숙(2002)이 8문항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요인으로 나타난 1개 문항을 제외시켜 총 7문항으로 재제작하여 사용하였다. 7문항은 도덕성의 실천, 시민으로서의 책임수행,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성장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요구,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이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가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의 부모됨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81이었다.

3) 감정이입검사

감정이입검사는 얼마만큼 남의 감정과 공감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김연주(1998)가 30개 문항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낮은 2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28문항으로 재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이입을 잘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검사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89이었다.

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62였다.

4)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김문주(198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존감의 반영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으로 응답하는 6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4년 11월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전국의 4년제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중 질문지를 주고 응답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함으로써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C program(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으로 Tukey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Pearson's product

<표 2>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의 성별,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 (N=477)

	3학년(M(SD))			4학년(M(SD))			전체(M(SD))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부모됨의 동기	혈연적 유대강화	3.28 (.95)	3.05 (.90)	3.16 (.93)	3.22 (.85)	3.09 (.95)	3.13 (.91)	3.26 (.92)	3.07 (.92)	3.15 (.92)
	전통적·규범적	2.25 (.72)	2.38 (.63)	2.32 (.68)	2.09 (.68)	2.35 (.74)	2.26 (.73)	2.20 (.71)	2.37 (.68)	2.30 (.70)
	이타적·정서적	3.52 (.79)	3.58 (.72)	3.55 (.75)	3.25 (.75)	3.54 (.72)	3.44 (.74)	3.43 (.78)	3.56 (.72)	3.51 (.75)
	부부결속·영속적	2.84 (.73)	2.75 (.69)	2.79 (.71)	2.63 (.87)	2.84 (.72)	2.77 (.78)	2.77 (.78)	2.78 (.70)	2.78 (.73)
부모됨의 의미	도덕성의 실천	3.37 (1.02)	3.07 (1.05)	3.21 (1.05)	2.89 (1.11)	3.13 (.98)	3.05 (1.03)	3.22 (1.07)	3.10 (1.02)	3.15 (1.04)
	시민으로서의 책임수행	3.02 (1.10)	2.78 (1.06)	2.89 (1.08)	2.67 (1.16)	3.03 (.90)	2.91 (1.00)	2.91 (1.03)	2.89 (1.00)	2.89 (1.05)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3.69 (.86)	3.55 (.85)	3.61 (.86)	3.21 (1.07)	3.68 (.88)	3.52 (.97)	3.54 (.95)	3.60 (.86)	3.58 (.90)
	성장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확인	2.83 (1.06)	2.87 (1.03)	2.85 (1.05)	2.70 (1.16)	2.93 (1.09)	2.85 (1.12)	2.79 (1.09)	2.89 (1.06)	2.85 (1.07)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요구	2.65 (1.05)	2.95 (1.04)	2.81 (1.05)	2.53 (1.05)	2.90 (.99)	2.78 (1.03)	2.61 (1.05)	2.93 (1.02)	2.80 (1.04)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표시	3.39 (1.00)	3.45 (.91)	3.42 (.95)	3.05 (1.08)	3.48 (.96)	3.34 (1.01)	3.28 (1.03)	3.46 (.93)	3.39 (.98)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	3.68 (.89)	3.62 (.96)	3.65 (.93)	3.30 (.98)	3.57 (.86)	3.48 (.92)	3.56 (.93)	3.60 (.93)	3.58 (.93)
	감정이입	3.62 (.49)	3.83 (.49)	3.73 (.47)	3.56 (.47)	3.80 (.44)	3.72 (.46)	3.60 (.44)	3.82 (.47)	3.73 (.46)
자아존중감	3.27 (.52)	3.43 (.55)	3.36 (.54)	3.21 (.52)	3.49 (.49)	3.40 (.51)	3.25 (.52)	3.46 (.52)	3.37 (.53)	

moment correlation),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에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연구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들의 성과 학년에 따라 척도별로 산출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앞의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됨의 동기는 3학년과 4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타적·정서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혈연적 유대강화,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규범적 동기가 가장 낮았다. 부모됨의 의미는 3학년과 4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과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라는 점을 가장 우위에 두었고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요구'에 가장 낮은 의미를 두었다. 전반적으로 감정이입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자아존중

감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은 3, 4학년 모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학년, 지역, 부 직업유형,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됨의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학적 변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산출된 것은 성, 전공과 모 취업유무였다. 그리하여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성과 모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남학생($M=3.26, SD=.92$)이 여학생($M=3.07, SD=.92$)보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M=3.26, SD=.94$)가 비취업인 경우($M=3.08, SD=.92$)보다 더 높았고,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여학생($M=2.37, SD=.68$)이 남학생($M=2.20, SD=.71$)보다, 어머니가 비취업한 경우

<표 3>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F치) (N=447)

인구학적 변인	부모됨의 동기	혈연적 유대강화	전통적·규범적	이타적·정서적	부부결속·영속적
성		4.725*	6.563*	3.140	.044
학년		.085	.831	2.144	.081
지역		1.926	.949	.429	1.708
전공		2.185	.521	2.978*	1.848
부 직업유형		1.266	2.000	.466	.699
모 취업유무		3.906*	4.350*	1.222	.712
부 교육수준		.419	1.400	2.144	.633
모 교육수준		1.460	1.154	1.312	.457

* $p<.05$

<표 4>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N=477)

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동기	혈연적 유대강화	전통적· 규범적	이타적· 정서적	부부결속· 영속적
도덕성의 실천		.154***	.328***	.250***	.319***
시민으로서의 책임수행		.110*	.288***	.222***	.299***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112*	.328***	.295***	.296***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145**	.422***	.270***	.391***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욕구		.087	.285***	.290***	.260***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표시		.067	.332***	.205***	.386***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		.127**	.288***	.342***	.313***
감정이입		.114*	.077	.415***	.210***
자아존중감		-.090	.105*	-.103	-.005

* $p < .05$ ** $p < .01$ *** $p < .001$

($M=2.36, SD=.72$)가 취업한 경우($M=2.22, SD=.67$)보다 더 높았다. 이타적·정서적 동기는 전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생활과학대학($M=3.77, SD=.63$)과 공과대학($M=3.28, SD=.77$)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들 중 부부결속·영속적 동기는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됨의 동기들은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됨의 동기 중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다른 부모됨의 동기와 비교하여 부모됨의 의미와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부모됨의 동기 중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부모됨의 의미 중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욕구와 원

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을 나타내는 것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외의 다른 부모됨의 동기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부모가 되는 동기기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감정이입은 부모됨의 동기 중 전통적·규범적 동기를 제외하고 다른 하위 동기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감정이입이 잘 될수록 부모됨의 동기 수준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아존중감은 부모됨의 동기 하위요인들 중 전통적·규범적 동기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통적·규범적 동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3.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의 영향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 (N=447)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t	F
혈연적 유대강화	도덕성의 실천	.143		3.039**	
	감정이입	.097	.035	2.072*	6.387***
	자아존중감	-.093		-2.004*	
전통적· 규범적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262		5.256***	
	도덕성의 실천	.146		3.099**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137	.239	2.908*	28.971***
	자아존중감	.103		2.481*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098		1.975*	
이타적· 정서적	감정이입	.341		8.223***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상태	.202		4.585***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욕구	.133	.279	2.961**	35.475***
	자아존중감	-.101		-2.499*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102		2.241*	
부부결속· 영속적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219		4.509***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231	.243	4.982***	36.749***
	도덕성의 실천	.154		3.401***	
	감정이입	.128		3.061**	

* $p<.05$ ** $p<.01$ ***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은 부모됨의 동기들을 약 4~28%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에 대해 가장 낮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부모됨의 의미 중에서는 도덕성의 실천만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감정이입의 설명력이 없었으며, 부모됨의 의미 중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의 설명력($R^2=.18$)이 가장 높았고, 다른 부모됨의 동기들과 달리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적·정서적 동기’는 감정이입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R^2=.17$), 부모됨의 의미 중에서는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상태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부부결속·영속적 동기’는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R^2=.15$)이 가장 많이 설명해주었고, 감정이입의 설명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부모됨의 의미 중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도덕성의 실천,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상태,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욕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시민주로서의 책임 수행이나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 3학년과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하여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는 이타적·정서

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전통적·규범적 동기가 가장 낮게 산출되었다. 부모됨의 의미에서는 성 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과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를 가장 우위에 두었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이타적 욕구가 가장 낮았다. 이는 유계숙·정현숙(2002), 유안진·신양재(1993)의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은 부모가 되는 동기로 혈연적 유대나 전통적 규범 등의 사회적 압력이나 지위보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동기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됨의 동기에 있어서 이타주의적 동기가 높았던 김지은(2000), 정미라·이희선·배소연(1995)의 연구결과들과도 일관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부모됨의 동기는 비이기적인 측면에서 타인을 도와주려는 이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우위를 두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관습이나 도덕성, 책임수행보다는 개인의 만족이나 심리적인 측면에 더 강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전통과 규범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개인들이 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만족이나 쾌락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됨의 동기는 인구학적 변인들 중 성과 전공,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전통적·규범적 동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어머니가 취업하고 남학생인 경우에,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고, 여학생인 경우에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일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결혼하여 대를 잇는 것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로서 갖추

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는데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남자 대학생들은 결혼하여 부모가 됨으로써 대를 잇는 것을 여학생보다 더 우위에 둬으로써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비취업한 경우에는 가사에 전념하는 부모 역할이 자녀에게 모델로 작용하고, 이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부모가 됨으로써 신체적 성숙을 증명한다거나 노후를 대비하고 누구나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등의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동기를 높이는 요인이 되어 남녀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되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부모됨의 동기 중 가문의 존속을 더 우위에 두었던 연구결과들(김지은, 2000; 유안진·신양재, 1993; 정미라·이희선·배소연, 1995)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Bell, Bancroft, & Phillip (1985)이 부모됨의 동기가 대인관계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던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의 설명과 관련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부모됨의 동기를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하여 생활과학대학 학생들이 이타적이고 정서적인 부모됨의 동기가 다른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높게 산출된 것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에 비해 인간발달과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와 관련된 수업을 더 많이 수강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부모됨의 동기를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이입을 잘 할수록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자아존중감과 유일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감정이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모됨의 동기와 달리 전통적·규범적 동기만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James(1980)가 개인의 욕구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James(1980)는 자아존중감을 성공하려는 것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 설명하면서 욕구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송인섭, 1990 : 15)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됨의 전통적·규범적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으로써 James가 주장한 것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규범적 동기가 자녀를 통해 부모로서의 신체적 성숙을 증명한다든지, 노후에 의지할 곳을 위해 부모가 된다거나 혹은 부모가 되면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성공하려는 욕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재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이입과 부모됨의 이타적·정서적 동기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Batson(1991)의 감정이입-이타성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돕기 행동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곤경에 처한 사람의 고통을 자신도 그대로 느끼는 감정이입이기 때문에(정옥분, 2006 : 350)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준다면, 인생에서 의미있고, 보람찬 일이라서, 혹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을 좋아해서라는 부모됨의 이타적·정서적 동기가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

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돕기 행동을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모됨의 이타적·정서적 동기는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부모가 되려는 동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입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됨의 부부결속·영속적 동기는 배우자와 인생목표와 경험을 공유한다거나 배우자와의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상징하거나 가계계승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정체성의 수용과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이나 사회적 성숙이라는 부모됨의 의미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부모됨의 의미,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으나, 나머지 다른 부모됨의 동기들은 이들 변인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부모됨의 의미 중에는 도덕성의 실천,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의 표시가 부모됨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됨의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도덕성의 실천의 영향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자녀출산이라는 부모됨의 동기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일종의 도덕적 측면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출산 연기(birth postponement) 현상이 저출산 국가들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박수미(2006)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비록 현대의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속된다면 부모됨의 사회적 의미로서 도덕성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개인적 의미로서 대

를 잇고자 부모가 되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부모됨의 전통적·정서적 동기는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러한 부모됨의 동기가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성숙을 증명하거나 부모가 됨으로써 성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측면이 대학생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부모됨의 이타적·정서적 동기는 감정이입과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양육한다는 전통적인 생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감정이입이 풍부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행동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로써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됨의 부부결속·영속적 동기는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및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에 의한 부모됨의 의미의 영향이 많았다. 이는 대학생들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이혼을 방지할 수 있거나 가계를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 등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저출산 시대에 보다 유능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면에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됨의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취업모와 남학생이,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비취업모와 여학생이 더 높고, 이타적·정서

적 동기는 생활과학대학생들이 높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됨의 의미 중 도덕성의 실천,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욕구와 감정이입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표집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의 수가 많지 않고,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의표집하여 표집에 따른 편파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부모됨의 동기를 현 부모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다각적인 측면의 분석이 미흡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에 비해 가능한 한 전국의 대학교를 표집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과 감정이입이나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함으로써 대학생 대상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역할과 양육태도 등을 고려하여 부모됨의 동기와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초기 삶과 스트레스와 관련한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전국적인 표집을 통해 1학년 부터 4학년 학생들의 학년별 부모됨의 동기와 의미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86, 6-21.
- 김인주 · 이근현 · 윤현석 · 김성수 · 조한익 · 박은희 (1998). **우리 아이 EQ 높이기 : EQ 교육법**(pp. 261-265). 서울 : 학지사.
- 김용미 · 서선희 · 옥경희 · 정혜정(2002). **결혼과 가족의 의미**. 서울 : 양서원.
- 김은주(2006).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 동의. **대한아동간호학회지**, 12(1), 89-95.
- 김지은(2000).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 충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3), 47-58.
- 박화윤 · 최계숙 · 마지순(2002).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23(5), 65-76.
- 송인섭(1990).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원.
- 여학생 10.4%만이 “결혼 꼭 해야”. **조선일보**, 2007. 3. 8.
- 유계숙 · 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유안진 · 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 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 정미라 · 이희선 · 배소연(1995). 대학생들의 예비 부모 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179-197.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_____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 학지사.
-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 학지사.
- 정현숙 · 유계숙 · 어주경 · 전혜정 · 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 신정.
- 조성연(200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1), 359-373.
- 조성연(2006). **예비부모교육**. 서울 : 학지사.
- 조성연 · 이정희 · 천희영 · 심미경 · 황혜정 · 나중혜 (2006).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신정.
- Bell, J. S., Bancroft, J., & Philip, A. (1985). Motivation for parenthood : A factor analyt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having childre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6(1), 111-119.
- Browing, D. (2000). *What is marriage? An exploration* (www.uchicago.edu/divinity/family)
- Clavert, B., & Stanton, W. (1992). Perceptions of parenthood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15 year-old girls and boys. *Adolescence*, 27, 315-329.
- Jaffe, M. (2000). **부모교육**(공인숙 · 권영옥 · 김영주 · 문무경 · 이강이 · 이경화 · 이완정 · 한미현 역). 서울 : 창지사.
- Jensen, L. C., Christensen, R., & Wilson, D. J. (1985). Predicting young women's role preference for parenting and work. *Sex Roles*, 13, 507-514.
- Lamana, M. A., & Reidman, A. (1988). *Marriages & families: Making choices & facing change*(3rd ed.). Belmont, CA : Wadsworth.
- Morahan-Martin, J. (1991). Consider the children : Is parenthood being devalued? *Psychological Record*, 41, 303.
- Powell, D. R. (1993). Support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early year : Lessons learned and yet to be learned.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 Sage.
- Sroufe, L. (1983). Infant-caregiving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a in child psychology*(Vol.16). Hillsdale, NJ : Erlbaum.
- Veevers, J. E. (1973). The social meaning of parenthood. *Psychiatry*, 36, 291-310.